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전북자치도, 14일 '분산법' 시행 앞두고 전략 마련 대응 협의체·관계 기관 협력으로 성공모델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방안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분산법의 핵심으로 많은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법이 제정되자 법 제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율리 관련 분야 기관 및 전문가로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군 및 관계기관 협력회의, 기업 및 발전사업자 협의 등 많은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3단계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현재 분산자원 인프라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군산 국가산단 또는 새만금 산단을 우선 지정 추진한다.

이후 2단계는 전력지립률 100%를 초과하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 지역을, 3단계는 조성 예정인 원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화지역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1단계 산업단지형의 경우 도내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산단과 군산 1~2국가산단에 이미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관

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있어 기업 등 전력 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 인근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시설이 완료되면 전북자치도는 전력지립률이 2022년 기준 69%에서 126%까지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새만금 인근에서 전력공급이 가능하여 RE100 이행 의무기업의 목표 달성도 지원할 수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추진 등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25년에 특화지역 지정 추진

을 검토 중이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는 민간기업 또는 기초지자체가 특화지역계획을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지사는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부는 계획을 검토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정 승인 통보를 하게 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남은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고, 산업단지형 특화지역의 전력수요자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지원, 창업보육, 조사, 연구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 성료

도, 환경의 날 맞아 사생대회 입상자 24명에 상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를 도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료했다고 밝혔다.

'스티로아트 탄소 중립 사생대회'는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일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 숲에서 개최한 행사로, 도내 초·중·고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특히, 대회에서 사용되는 물감으로 페스티코를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물감을 제공하여, 처음 접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상식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축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시상식을 찾은 입상자와 가족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작품을 감상하는 등 축하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입상작품은 대회에 참가한 총 98점 중 초등부 12점, 중고등부 12점 총

24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김계경산초 조하영 △전주솔빛중 최주에 학생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이리모현초 김서현 학생, 우수상은 △이리모현초 정시현 학생, 장려상은 △이리모현초 정시현 학생, △전주새연초 노지유 학생, △전주동중 박하운 학생, △전주서중 김성미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특별상으로 △이리모현초 권나은 학생, △전주새연초 노지유 학생, △전주동중 박하운 학생, △전주서중 김성미 학생, △부안여고 고은비 학생이 수상했다.

한편, 대회 수상작품 24점은 7일까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전시해 청사를 찾은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상황리 개최

품질경영 활성화 유공자 4명 수상... 8월 전국대회 출전 기회 얻어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도내 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품질분임조 발굴을 위한 2024년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도내 중소기업 13개사의 품질분임조가 출전해, 2시간 노력해 온 품질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분임조 사례발표에서는 △발전설비 정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비시간 단축 사례 △변전 가스절연 개·폐장치 정비공정 개선을 통한 고장 복구 시간 단축 사례 등 다양한 품질개선 성과가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3개의 분임조 중 (주)정석케미칼의 '백마' 분임조는 도로용 합성수지 제조공정 개선으로 작업시간을 감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2개 분임조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품질분임조는 올해 8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전북을 대표해서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해 순천에서 펼쳐진 전국대회에서 전북지역 출전 분임조는 금상 1개, 은상 4개, 동상 9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 생산현장에서 품질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분임조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실천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품질 및 생산성은 기업의 경쟁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경영자의 주주적인 품질 제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품질분임조들이 전북경제 주역의 버

팁목이 되고, 기업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인정받은 4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명)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3명)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주)케이씨 김태근 공장장은 품질·안전 인증취득을 통한 제품 개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앞장

30일까지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성질환의 적절한 예방관리를 위해 환경성질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이란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흡수,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있다.

특히 산업화, 주거 형태 및 생활 습관의 변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 등 면역체계 약화로 환경성 질환자는 매해 증가 추세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환경부(한국환경기술원)와 협업하여 도내 173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진단하고 오염도를 줄이는 방법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내 완료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전문가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7개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안내하며, 환기 지도, 침구류 세탁, 청소 등 실내환경 청결 유지와 환

기성 질환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 가구에서는 "우리 집에 이런 물질이 있는지 몰랐다", "눈으로 수치를 보니 경각심이 든다"는 등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실내환경에 좀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컨설팅 결과 노후화, 누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및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개선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 곰팡이 제거, 친환경 벽지·장판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복지국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지만 실내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앞으로 주거환경 및 실내환경의 꾸준한 개선을 통해 도민의 환경 보건 인식증진과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도 감염병관리과 및 시·군 보건소와 협업체 협력해 여름철 대비 도내 다중이용시설 259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강화한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오염된 물에서 증식하고,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레지오넬라증 폐렴이 동반된 경우 만성폐질환자, 당뇨, 고혈압 환

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5~30% 치명률을 보인다.

레지오넬라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청소, 소독을 통한 감염 예방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의 냉각탑수, 대중목욕탕의 욕조수, 숙박 시설의 온·냉수, 분수 등이다. 검사 대상이 레지오넬라균 기준 초과 검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감염병관리과 및 해당 보건소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고, 검출된 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재검사를 한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